

강진군, '가우도 출렁다리' 명칭 바꾼다

약 3km 연륙교...오는 10일까지 군 홈페이지 통해 설문조사 실시 '실제 출렁이지 않는다' 관광객 요구에 실제 출렁다리 상반기 개통



새로운 출렁다리 조감도.

2021년 신축된 소의 해를 맞이해 더욱 유명세를 얻고 있는 강진군의 관

광명소인 '가우도 출렁다리'의 명칭이 변경된다.

강진군은 지난 1월29일 '가우도 출렁다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준공된 가우도 출렁다리는 강진군의 핵심 관광지인 가우도를 대구면 저두리와 도암면 망호리를 연결한 연륙교다. 가우도 해안선을 따라 약 3km의 산책로와 함께 가우도 쥘트랙 등 즐길거리가 많아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강진군 대표 명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우도 출렁다리를 다녀온 관광객들은 이름과 다르게 실제로 출렁이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진군은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해 가우도 내에 실제로 움직이는 출렁다리를 개통한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출렁다리는 가우도 내에 길이 150m, 높이 15m로 조성되며, 주변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한 후 올 상반기 내에 개통할 계획이다.

군은 추후 두 다리의 명칭이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래 가우도 출렁다리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설문조사를 오는 2월10일까지 진행한다. 새로운 명칭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변경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 가우도 출렁다리 명칭 변경과 함께 진짜 움직이는 출렁다리를 완공하고, 향후 가우도 내에 민자유치를 통한 숙박·레저 시설 확충을 통해 가우도를 서남해안 대표 체류형 관광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전 주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완도사랑상품권 5일부터 지급...민생 안정·경제 회복 보탬

신우철 완도군수는 2월 1일 담화문을 통해 주민 1명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고,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완도군의회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함께 하고, 2월 4일 의회를 개최하여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으로 군비 50여억 원이 소요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31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증을 받고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상품권 신청 기간은 설 이전인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3월 5일에 신청한 주민은 3월 8일까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신청보다는 세대주별 신청제를 도입하여 상품권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한다.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는 완도군청 총무과 행정팀(061-550-5181)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과로 하면 된다.

완도=김광수기자

해남군, '임신에서 출산까지' 촘촘한 지원 강화

임신기간동안 보충식품 구입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해남군이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해남 만들기를 목표로 임신에서 출산까지 촘촘한 지원을 강화한다.

해남군 임신부라면 누구나 임신기간 동안 보충식품 구입비를 10개월 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신기는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로 임신부 건강 및 태아 성장증진을 위해 쌀과 달걀, 감자 등 8가지 필수보충식품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시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일반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50%를 지원해 최대 77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아 이상 다둥이 가정에는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이 지급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기저귀 구입비 월 6만4,000원씩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남도 신생아 양육비가 올

해부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어 첫째아 320만원, 둘째아 370만원, 셋째아 620만원, 넷째 이상 740만원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 받게 된다.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가격 중 본인 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부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 출산·양육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

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모유수유, 아기돌보기 등 양육 관련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남군에 거주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속 방문이 필요하면 아들이 2세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 일부를 시술종류 및 연령에 따라 20~1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매년 5명 정도의 한방 난임 치료 대상자를 모집해 1인 18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와 한약 등을 지원한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 선발...5월 15일까지 활동

진도군이 봄철 산불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진화 공조체계 구축 ▲산불 발생 예방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최근 진도 공설운동장에서 체력 검정 등을 실시해 선발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은 7개 읍·면에서 수시 순찰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비상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등산객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위해 산불 취약지 등에 대한 감시 활동과 소각 금지 계도단속 등 산불 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하세요”

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 3월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 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 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농업 경영체 변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은 3월까지 농업 경영체 변경 등록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장흥사무소 ☎ 061-863-6060), 콜센터(☎ 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모바일 메시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장흥=김도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